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모자이크

우리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창립자는 우리 빠스또렐레에게 맡긴 사목 활동의 모델을 이 모습에서 가져왔다. 모자이크는 우리에게 혼을 불어넣어주는 사목 정신의 핵심을 드러낸다.



프라따로끼-디 우르소의 모자이크
로마 알바노 라지알레의 모원

동정녀께서는 당신을 둘러싸고 모여 있는 양들에게 “신선한 풀”을 제공하는 자세로 매우 단순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표현되었는데,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를 “차고 넘치는 생명” (참조 요한 10, 10)을 얻게 해주는 말씀과 성사로 해설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마리아의 사명을 “삼중의 협력”으로 보았는데, 이는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양 떼를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단순하고 근면하고 선하게 매일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느님 백성 전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느끼고, 모든 이들의 어머니요 자매가 되어주는 신비를 살아가도록 빠스또렐라에게 권고하고 중재하신다.

마리아 앞에는 양들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소년 목동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얼굴을 관상하다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참조 요한 10, 18) 양들을 돌보신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서 당신의 양들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정신을 우리의 것으로 하여, 영혼들을 교육하고, 좋은 표양을 보이고, 은총을 주고, 소년 목동을 본받으라고 빠스또렐라에게 권고하였다.

마리아 곁에 오른쪽에는 사도 베드로가 왼쪽에는 사도 바오로가 있다. 초기 교회의 지극히 훌륭한 두 분의 목자들이다. 둘 다 양 떼 가운데 있으며 목동 예수와 여성 목자 마리아께 가는 길을 가리키며 양들을 모으는 임무를 수행한다. 빠스또렐레는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충실하며 무상으로, 기쁘게, 하느님의 양 떼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바오로에게는 역사와 문화와 대화하며 사목적 직무를 수행하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

많은 양들이 있고, 이 양들은 중앙에 자리하며, 이 모든 인물들의 주의와 보호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모든 양들은 예수님을 향한 여정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름을 불러 부르시는 것을 알아듣는다. (참조 요한 10, 3-4) 빠스또렐레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 당신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위하여 갖는 연민을 함께 느끼고, 그들을 특별히 돌본다.